

IV.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의 의의 및 전략과제

이 장에서는 제Ⅲ장의 전망에서 논의된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 경영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전망은 다분히 보험시장의 외형성장 즉 보험료 전망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경영과제도 성장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국한하고자 한다. 우선 향후 10년간의 보험산업 전망이 보험회사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을 주도할 종목과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10년간의 성장 유형을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 및 경영 전략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중장기 전망의 의의

향후 10년간 보험산업은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부양비 하락, 베이비붐 세대의 50대연령 진입 등 다양한 금융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FY2015에 총보험료는 184.9조원, 연평균 7.9%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보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2005~2015년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으로 은퇴와 관련된 금융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부양비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4% 전후 수준을 유지하는 마지막 시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양비는 2016년 36.6%의 저점을 기준으로 이후 전체 부양비 상승세가 전망됨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은 저축여력이 최대한 확대되는 시기인 동시에 2016년 이후에는 저축 및 투자부문의 위축이 우려된다. 또한 2010년까지 잠재GDP 성장률은 4%대를 나타내다가 이후 3%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10년이 성장을 위한 기회가

나 동시에 2015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저성장기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본격적인 저성장기에 대비하여 2015년까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 및 은퇴시장에 대비한 보험회사 특유의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2. 장기 경영 및 정책 과제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보험산업 환경변화로 미루어 볼 때, 은퇴시장의 발달로 인한 저축·투자형 상품,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보장성 상품 등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산업에서는 각종 정책성 보험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각종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첫째, 2005년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퇴직연금 시장이 발달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관련 금융수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저축·투자형 부문의 성장이 예견된다. 단, 타금융권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생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보험권만의 차별적인 상품/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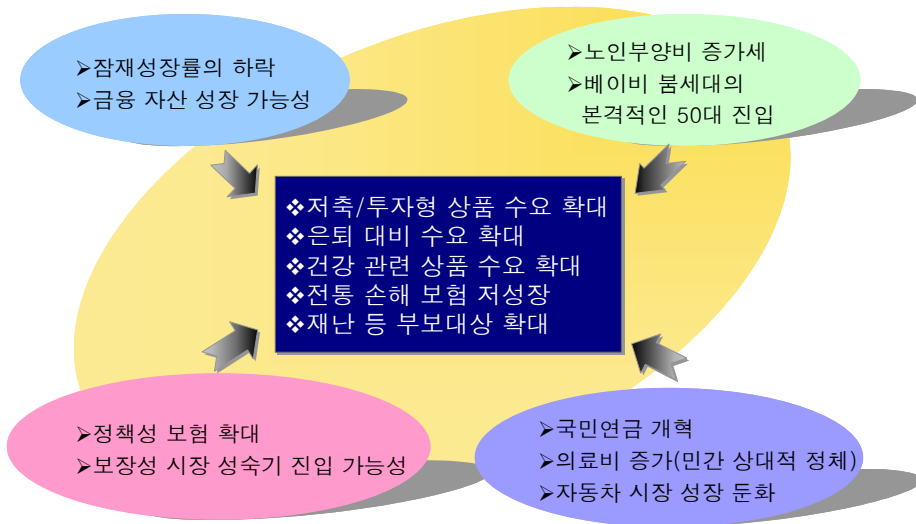
둘째,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보장성 상품 수요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단,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민영 건강보험 영역의 축소가 예상되고, 종신형 상품의 시장이 성숙됨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풍수해보험 도입 등 재해 관련 정책성 보험이 확대될 전망이고, 다양한 위험에 대한 포괄보장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패키지형 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다양한 거대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적정한 요율 산출 및 언더라이

팅 능력 제고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거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본격적 저성장/저수익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까지 중장적으로 기업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크게 저축/투자형 상품과 보장성 상품으로 나누어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이후는 본격적인 경제의 저성장과 함께 보험산업의 저성장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성숙단계에서 체질강화와 여타 금융산업과의 중첩되는 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 독자적인 분야에서 서비스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IV-1> 보험산업 환경평가



가. 저축/투자형 상품

저축성 상품은 연금을 위주로 한 생존보험과 단기 저축성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생사혼합보험을 포함하며, 투자형 상품이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저축보험료의 운영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보험소비자가 지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2001년부터 도입된 변액보험은 현재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 변액CI보험, 및 기타의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최근 간접투자시장의 성장과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변액보험의 성격은 실적배당형 및 투자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보험상품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품인데 펀드의 구성에서 채권비중이 다른 펀드에 비해 높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종목별로 일정부분 전통보험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변액유니버설(VUL, Variable Universal Life)보험의 경우 본격적인 투자형 상품으로 최근 도입되자마자 급격히 성장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이 주목되는 상품이며, 보험사로서는 변액보험의 수요확대와 수익성, 판매 후 관리에 유념해야 할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1) 보험기능의 강화

저축/투자형 보험상품은 향후 은퇴시장의 발달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품종목으로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중요성이 더해가는 상품군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저축성 보험상품은 세제혜택에 대한 정책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입보험료의 크기가 크게 달라졌으며, 보험사들도 보험의 저축성 기능으로 강조하는 마케팅 정책을 펴왔었기에 저축성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을 아울러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시중금리와 예정이율간의 스프레드가 급격히 줄어들고 배당보험의 주주배당비율이 축소됨과 함께 자산운용의 부담을 느

껴온 보험사들이 비중을 축소해옴에 따라 성장이 크게 제한되었다.

최근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소비자들이 인식이 제고되고 또 국민연금 재정의 적자심화가 예상되고 소득대체율의 하락이 예측됨에 따라 노후소득마련을 위한 저축성/투자형 상품의 중요성이 다시 시장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연금측면에서 보험상품은 종신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최후 노후소득의 보루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타금융권과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단기로 운영되어 왔던 기존의 관행은 앞으로 보험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장기운영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또한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판매도 장기적으로 연금상품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생애주기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는 등 생존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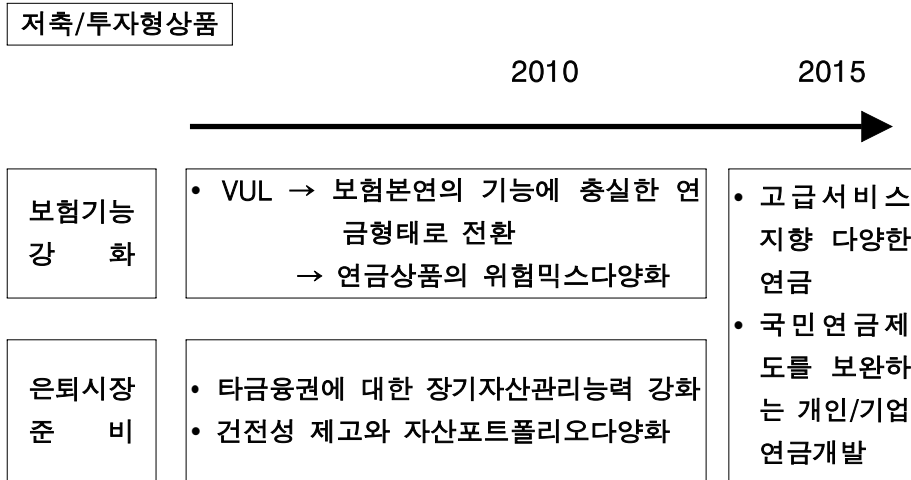
2) 은퇴시장 진출

은퇴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금융시장 또한 장기와 단기투자를 대상으로 각 금융권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융권의 통합화 및 겸업화와의 진전과 함께 보험권의 많은 부분이 타금융권과 겹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강화를 통한 보험사들의 준비를 요하고 있다. 자산운용에 있어 타금융권과 대비해 보험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자산의 운영경험에 오는 장기자산관리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으로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자들의 가입기간 장기화에 대비해 보다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해외 장기상품의 투자 등 다양한 장기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맞춘 장기자산의 확보와 리스크관리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한편 비록 예금보험기금의 보장이 있기는 하나 보험사의 선택에 있어 자산건전성은 보험사의 이미지제고뿐만 아니라 투자선택에 있어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자산건전성 강화와 함께 자산운용의 건전성강화도 중요한

장기 정책적 지향점이 될 필요가 있으며, 자산포트폴리오의 다양화로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IV-2> 저축/투자형 상품 정책과제



나. 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은 외환위기 이후 저축성 보험의 위축을 보충하고 보험본연의 기능강화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성장을 해왔다. 최근 성장의 둔화를 보이고 실손형 보장성 보험의 판매수익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공공건강보험의 의료비보장률이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민영건강보험 시장에 불투명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보다 정교한 상품설계와 개발 및 은퇴시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1) 상품위험관리 강화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을 결정하는 위험율의 관리는 보장성 상품

이 장기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며, 특히 장기적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보장성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는 중요하다. 종신보험의 성장은 고령화가 진전되고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생존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상품적 가치는 향후 보장성 상품의 시장 형성에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보장성 상품의 큰 축인 민영건강보험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한 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하며, 전국민적 건강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은 보충적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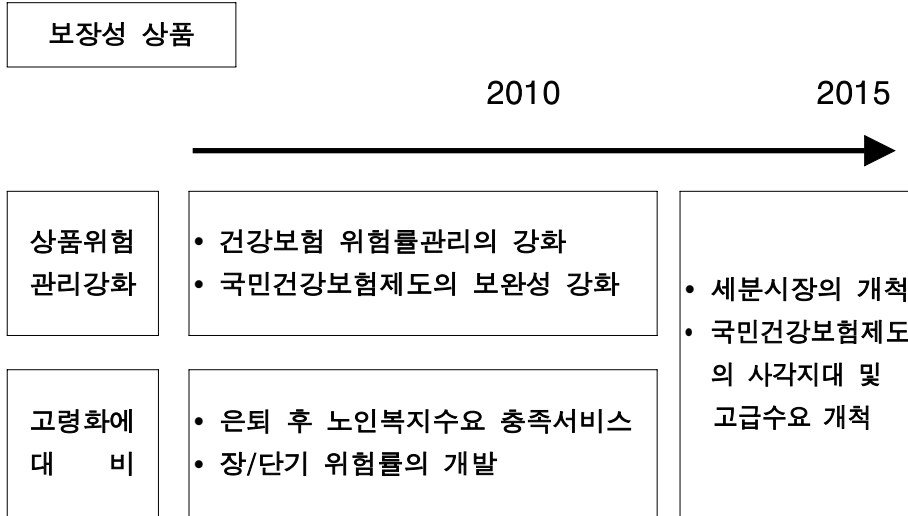
따라서 보험사들의 건강보험위험률에 대한 경험 통계를 집적하고 보험금지급에 대한 자료를 공유 및 지급심사 할 수 있는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며, 보험사들도 장기적인 보장성 상품의 시장확대를 위해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상품개발 측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고 담보하지 않는 상품의 개발 및 대중적 상품 외에 특화된 계층과 분야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고령화에 대비

은퇴 후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미래 소득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건강관련 의료비의 상승뿐만 아니라 노인관련 복지수요도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대중 상대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담보할 수 없는 다양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구미선진국과 일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강보험상품의 개발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관련 수요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기간의 장기화와 이에 대비한 젊은 층의 대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장단기 상품의 가격설정을 위해 장기위험률 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림 IV-3> 보장성 상품 정책과제



다. 정책성 보험 및 다양한 신상품 도입

1) 재해관련 정책성 보험

손해보험 산업에서는 최근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부보대상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06년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재해 관련 보험의 확대는 보험료 성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와 함께 수익성 제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거대재해의 특성상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위협하고 보험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익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확한 피해평가를 바탕으로 효율을 현실화하는 등 언더라이팅 능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경험데이터에 의한 전통적 리스크 평가뿐만 아니라 CAT모델을 도

입하는 등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학적 손실평가를 통해 적정한 요율을 적용시켜야 한다. 이는 해외 재보험시장에의 출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물건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켜 보험회사의 수익성,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패키지형 보험 등 다양한 신상품 도입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통합형보험이나 다양한 위험을 포괄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 패키지형 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형보험의 경우 단순히 상품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고객의 리스크를 밀착 관리함으로써 완전 판매를 통한 수익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객유지 관리를 통한 고객충성도 제고를 위해서는 컨설팅 능력을 갖춘 전문 영업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그림 IV-4> 패키지형 및 정책성 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